

제 목	국 문	병원서비스별 원가분석결과를 이용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성 분석		
	영 문	An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Medical Insurance Fees Using Hospital Service-based Cost Inform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 하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Hayoung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박 하영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v),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1개 3차진료 대학병원의 서비스별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연구대상 병원의 1992 회계년도 재무 및 진료활동 자료를 병원서비스별 원가분석모형에 적용하여 해당년도에 의료수입을 발생했던 총 5,546종 서비스의 단위 서비스 산출을 위한 각각의 원가가 추정되었다. 이들 중 행위서비스며 의료보험급여 대상인 1,580종의 서비스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p> <p>우선 수가 대 원가의 비율로 정의되는 원가보상율을 구하고 이의 서술통계치가 분석되었으며, 수가와 원가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 서비스분야별 유사한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성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로그 변환된 수가와 원가의 회귀분석을 통해 원가의 크기 변화에 따른 수가의 대응 행태가 분석되었다.</p>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병원에서의 의료보험급여 행위서비스의 전체적인 원가보상율은 85.4% 이었다. 서비스별 원가보상율의 범위는 0.9% - 2558.1% 이었고, 5 percentile 10.8%, 95 percentile 477.8%, 25 percentile 34.2%, 75 percentile 110.6% median 63.5% 이었다. 원가와 수가사이의 상관계수는 0.81이었다.

2) 서비스들을 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재활치료료, 신경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초음파료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원가보상율 평균의 범위가 38.2% - 442.3%로 분야별로 원가보상율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마취료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계수는 -0.07에서 0.80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분야별 전체 원가보상율은 31.4%에서 232.5%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3) 처치 및 수술료의 적정성을 피부, 근골, 호흡기, 순환기 등 16개 임상분야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원가보상율 평균의 범위가 26.7% - 107.9%로 분야별로 원가보상율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관계수는 0.42에서 0.99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분야별 전체 원가보상율은 20.9%에서 127.3%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4) 검사료의 적정성을 기능, 내시경, 요, 효소면역 등 16개 분야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원가보상율 평균의 범위가 41.8% - 550%로 분야별로 원가보상율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상관계수는 -0.22에서 0.96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분야별 전체 원가보상율은 12.0%에서 949.2%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5) 로그 변환된 수가와 원가의 회귀식 계수가 0.75로 원가가 1% 증가할 때 수가는 0.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고찰

본 연구가 1개 병원의 1개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그 결과의 일반화나 실용화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나 위에서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 의료보험의 전반적 수가수준이 그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 서비스별 수가보상율의 큰 차이로 인해 수가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별 원가보상율이 서비스분야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기관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요시되는 분야별 전체 원가보상율에는 차이가 존재해 이러한 차이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